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성 한 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한 집단에 소속하여 그 집단 멤버십을 자기 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0문항의 예비척도에 대한 남녀 대학생 361명의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19문항으로 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집단자기존중감, 자기범주화 및 집단개입의 3요인이 추출되었다. 244명의 다른 대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교차타당화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개의 하위척도의 신뢰도(α)는 .78-.84로서 상당히 높았으며, 사회정체화와 관련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로 알아본 수렴 및 변별타당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사회정체화 수준은 남녀 대학생들의 학년, 학과 행사 참여도 및 학생회 간부 경력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전공강의 출석률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척도의 요인구조에 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및 척도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정체성, 사회정체화 척도, 집단정체화, 자기범주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78, 1981)과 이 이론을 수정 보완한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은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정체성을 구별함으로써 집단내 과정과 집단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여 90년대 집단 연구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한덕웅, 1996; Moreland, Hogg & Hains, 1994).

사회정체성이론은 개인이 독특한 인물로서의 개인정체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여러 집단의 구성원임을 반영하는 사회정체성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

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78). 국적, 종교, 성(性), 직업, 학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중요한 참조틀이 된다. 사람들의 자기 지각은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인으로서의 자기 지각(개인정체성)과 내집단 범주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지각(사회정체성)의 연속선을 따라 변화한다. 이 때 비교 대상이 내집단 구성원이면 개인적 정체성이 특출해지는 반면에 비교 대상이 내외집단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사회정체성이 특출하게 된다(Turner et al., 1987).

두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을 한 집단 또는 사회범주의 일원으로 범주화하여 사회정체성을 지닐 때, 즉 집단에

1)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1999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을 받았음.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종구 교수(대구대)께 감사 드린다.

정체화(identification)하게 될 때 모든 집단 관련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한 집단에 정체화하면 집단내 유사성과 집단간 차이를 과장해서 지각하고(McGarty & Penny, 1988),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무조건 더 좋아하며(Brewer, 1979), 외집단 보다는 내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성한기, 1996), 개인정체 상황에서는 업무를 못 낼 파괴적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Reicher, 1987).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무역센터 테러사건은 개인정체 상태에 있던 미국 국민들이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회정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사회정체화가 모든 집단 현상의 기초가 됨을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회정체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이 집단 연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정체화 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사회정체 관련 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정체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집단간 차별 등과 같은 다른 반응으로부터 추론하는데 그치고 있다(Ellemers, Kortekaas & Ouwerkerk, 1999). 또한 일부 연구는 단순히 "당신은 이 집단에 얼마나 동일시합니까?"와 같은 단일 문항으로 정체화 수준을 측정(예, Gagnon & Bourhis, 1996) 하며, 표준화된 척도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자 임의로 제작한 문항들을 사용(예, Fisher & Wakefield, 1998)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회정체화 척도가 보고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여러 척도가 제안되고 있으나 널리 인정되는 척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회정체화 척도들은 대체로 앞에서 언급된 사회정체성에 관한 Tajfel(1978)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척도들과 연구자 자신의 개념 정의에 따라 구성된 척도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 정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주요 척도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Tajfel의 정의는 사회정체성을 집단멤버십이 있다는 인식(인지적 측면), 집단멤버십에 부여하는 가치(평가적 측면) 및 집단에 소속됨에 따르는 정서(감정적 측면) 등 3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정의를 토대로 제작된 최초의 척도는 10문항

으로 된 Brown, Condor, Mathews, Wade, 및 Williams (1986)의 척도였다. 이들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에 관한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3요인을 추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Hinkle, Taylor, Fox-Cardamone 및 Crook(1989)은 Brown 등(1986)의 척도를 수정한 9문항의 척도를 만들어 대학생들의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은 확인되었으나, 평가적 요인 대신에 개인 욕구와 집단 간의 상충과 관련된 요인인 개인/집단 요인을 얻었다. 세 요인간의 상호상관은 .43 ~ .58로서 비교적 높았다.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측정한 Karasawa(1991)는 평가 차원과 감정 차원을 통합하여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의 2차원으로 구분하여 7개의 문항을 구성했으나 2회의 연구에 걸친 요인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llemers(1993)의 10문항으로 된 척도 역시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Ellemers 등(1999)은 실험실에서 급조된 문제 해결집단에 대한 정체화 반응을 요인분석하여 자기범주화(인지), 집단자기존중감(평가) 및 집단에의 개입(감정)의 3요인으로 구성된 10문항의 척도를 개발하고, 이 중에서 집단에의 개입 요인이 사회정체화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인간의 상호상관계수는 보고하지 않았다.

최근 Bergami와 Bogozzi(2000)는 한국과 이탈리아 근로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4요인을 추출하였다. 즉, 자기범주화(인지) 요인, 조직관련 자기존중감(평가) 요인과 더불어 감정 차원은 즐거움(joy, 조직의 멤버가 됨으로써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감정)과 사랑(love, 조직을 향한 개인의 감정)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다시 구분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척도들은 모두 사회정체화에 관해서 인지, 감정 및 평가로 이루어지는 Tajfel의 다차원적 개념 정의를 근거로 문항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된 요인의 구조와 요인의 수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Tajfel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연구자 개인의 이론적 관점¹⁾에 따라 개발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1) 사회정체화에 관한 개념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정체성이론이나 자기범주화이론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같다. Mael과 Ashforth(1992)는 사회정체화를 특정 행동이나 감정 상태와 연합될 필요 없는 지각적/인지적 구성체로 간주하고 대학졸업자들의 모교에 대한 정체화를 측정하여 단일요인으로 된 6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Mael과 Tetrick(1992) 역시 사회정체화를 인지적 개념으로 보고 10문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경험공유(경험, 성공 및 실패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각) 및 특성공유(전형적 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각)의 2요인을 추출했으며 두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36이었다.

Hogg와 Hains(1996)는 사회정체성을 '자신이 포함된 사회적 범주의 측면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여성 운동선수들의 소속팀에 대한 정체화 수준의 측정을 통해서 9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요인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내집단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친화 수준'으로 사회정체화를 정의한 Kashima, Kashima 및 Hardie(2000)는 2개의 하위 요인, 즉 인지적 측면으로서 자신과 내집단간의 지각된 유사성을 의미하는 자기 전형성(self-typicality) 요인과 집단멤버십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평가적 반응을 뜻하는 집단정체화 요인으로 이루어진 12문항(연구 1) 및 14문항(연구 2)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최근 Cameron과 Lalonde(2001)는 성에서 비롯된(gender-derived) 사회정체화에 초점을 두고 28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하위 요인들로 이루어진 17문항의 척도를 개발했다. 세 요인은 각각 내집단과의 유사성 및 유대감 지각과 관련된 내집단 유대(ingroup ties), 집단멤버십이 자신에게 중심이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인지적 중심성(cognitive centrality), 그리고 집단멤버십과 연합된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인 내집단 감정(ingroup affect)으로 명명되었으며, 요인간 상호상관은 .02 ~ .29였다.

이 밖에 사회정체화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집단자아존중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Luhtanen & Crocker, 1992; 김혜숙, 1994)가 있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들에 부여하는 가치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측정하며, 총 16문항(한국판은 14문항)으로 구성되고 4개의 하위 척도(멤버십, 사적, 공적 및 정체성 집단자아존중)로 나

누어진다. 따라서 집단자아존중 척도는 사회정체화의 평가적 측면과 관련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척도는, 지시문의 변형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한 개인이 속한 여러 집단에 대한 경험이나 감정 등을 포괄한 일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도록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 소속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실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회정체화 척도제작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점은 연구자들간에 사회정체화 개념에 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데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Bergami와 Bogozzi(2000) 그리고 Cameron과 Lalonde(2001)의 척도를 제외한 기존 척도들은 6~17 문항 정도의 소수 문항으로 요인구조를 검토하였는데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Tajfel이 시사한 세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0개 내외의 문항 수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일부 척도는 표본 크기가 작아서 요인분석 결과의 신빙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Guilford(1959)는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200 이상으로 제안했고, Nunnally(1978)는 사례수 대 측정변인의 비율이 10 대 1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이런 기준을 감안한다면 9문항에 대한 62명의 응답을 요인분석한 Hinkle 등(1989)의 척도, 9문항-74명을 토대로 한 Hogg와 Hains(1996)의 척도 그리고 15문항-119명을 토대로 한 Ellemers 등(1999)의 척도 등은 매우 신뢰로운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기존 척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 외에 사회정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의 필요성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체성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으로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집단에 정체화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Brewer, 1991; Hogg & Abrams, 1989), 또한 어떤 집단에 정체화한다는 것은 실무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Mael & Ashforth, 1992)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집단에 정서적으로 개입한 정도

가 다를 뿐 아니라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Branscombe & Wann, 1994; Doosje, Ellemers & Spears, 1995; Ellemers & van Rijswijk, 1997). 한 예로서, Jetten, Spears 및 Manstead(1997)는 집단정체화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규범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가설화 하고, 집단에 강하게 정체화한 피험자들이 약하게 정체화한 피험자들보다 내집단의 외집단 차별규범에 더 강하게 동조하여 내집단편파(ingroup bias)를 더 크게 보인 결과를 얻었다. 이런 점에서 집단 소속 여부와 별도로 집단정체화 강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둘째, 내집단편파 또는 외집단 동질성 지각 등의 중속변인과 사회정체화 수준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한가지 이유는 정체화 수준의 측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Hinkle과 Brown(1990)은 집단정체화와 내집단편파간의 관계를 다룬 14편의 연구를 요약한 결과 상관계수의 중앙치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계수들의 범위는 -.41 ~ .41로서 변산도가 매우 큼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근래에도 이어지고 있다. 집단정체화와 내집단편파의 관계가 일관되지 못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단의 지위(Ellemers, van Rijswijk, Roefs & Simons, 1997), 개인의 집단내 지위(Smith & Tyler, 1997), 집단간 유사성(Roccas & Schwartz, 1993) 등 많은 매개변인들의 영향이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정체화 척도가 서로 다르며, 일부 연구(Henderson-King, Henderson-King, Zhermer, Posokhova & Chiker, 1997; Jackson, Sullivan, Harnish & Hodge, 1996)는 정교한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자 자의로 작성한 단일 또는 소수 문항의 척도를 이용한 점이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정체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이상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체성이론이나 자기범주화이론을 더욱 정교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구성원들의 동기, 사기, 인간관계 또는 수행은 그들의 사회정체화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정체화 척도는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의 실제 문제를 진

단하거나 해결 방안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해 봄으로써 사회정체화 개념의 다요인적 특징이 통계적으로 구분되는 성질인지 아니면 개념적 수준에서만 논의될 속성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 척도들 대부분이 한 두 연구에서만 활용되어서 널리 공인되거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척도가 없으며, 모든 유형의 집단에 두루 적용할 수 없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 척도를 번안하지 않고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체화 개념에 관해서 합의된 견해는 없는 실정이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에 관한 다차원적 정의를 토대로 문항들을 구성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경일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수 문항에 응답을 누락했거나 동일한 번호에 연속적으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38명의 자료를 제외한 605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176명(29.09%)이었고, 여학생은 429명(70.91%)이었으며²⁾, 학년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의 평균 연령은 21.47세(표준편차 3.31)였으며, 남학생은 평균 22.84세(표준편차 2.99), 여학생은 평균 20.90세(표준편차 3.27)였다.

질문지 구성

질문지는 사회정체화 척도와 이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2가지 척도(한국 공동체 의식 검사와 우리성 척도) 및 4개의 문항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관한 질문 등 모두 7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성별 사회정체화 수준은 남학생(평균 3.38, 표준편차 .63)과 여학생(평균 3.32, 표준편차 .59)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23$, ns.).

사회정체화 척도 사회정체화의 세 차원, 즉 인지, 평가 및 감정을 각각 측정한다고 판단되는 30문항의 예비 척도를 작성하였다. 이 중 20문항은 기존의 척도 문항들을 번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Brown 등(1986)의 척도로부터 8문항, Ellemers 등(1999)으로부터 3문항, Hinkle 등(1989)으로부터 2문항, 그리고 Mael과 Tetrick(1992)으로부터 7문항을 발췌하였다. 문항 선별과정에서 의미상 중복되는 문항(예, '나는 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와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과 잘 맞는다')는 하나만 선정하였으며,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만 해당할 수 있는 문항(예, 매체에서 이 집단을 비판하면 나는 당황스럽다)은 제외하였다. 그런 다음 영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와 함께 번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원문의 의미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나머지 10문항(예,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통점이 많다, 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은 기존 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사회정체화 개념과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문항들이다.

18개의 문항은 긍정적 문항이었고 12개의 문항은 부정적 문항이었으며, 이들을 무선적으로 섞어서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소속한 학과(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타 척도 및 문항 사회정체화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정체화 척도와 관련된 개념을 측정한다고 보여지는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정진경, 1999)와 우리성(we-ness)척도(김현수, 1991)를 포함하였다.

3) 사회정체성이론(Tajfel, 1978; Hogg & Abrams, 1989)은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정체화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정체화 되었다고 개념화하고 있고, 본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양한 집단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문항들만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소속 학과(또는 학부)에 대한 정체화 수준을 측정하였지만 '학과정체화' 대신에 '사회정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소속 학과는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집단들보다 그들의 생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 학과에 대한 정체화 수준을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는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는 검사로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6개의 하위 요인 즉,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 자율성과 공공의식, 그리고 권위적, 배타적 집단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소속감이나 동일시 등은 사회정체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검사와 사회정체화 척도가 각각 측정하는 구성개념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두 측정치간에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제작자의 권유대로 특수 종류의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권위적, 배타적 집단주의 요인에 해당하는 4문항을 제외하고 20문항만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에게 자신이 소속한 학과(학과소속이 아니면 학부) 및 그 구성원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여 사회정체화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진경(1999)은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가 .92임을 보고하였다.

우리성 척도는 직장내 인간관계의 깊이를 알아보고자 직장내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감, 속박감, 배려 및 정(情)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52 ~ .71로 보고되었다. 이 척도는 원래 직장인의 우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으나 대학생 등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김현수(1991)는 우리성을 집단내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있어서 우리성 개념이 집단 자체 및 구성원 전체에 관한 반응을 의미하는 사회정체화와 구분되는 개념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집단내에서 가장 친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집단 자체에 대한 정체화 수준간의 상관은 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정체화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척도를 질문지에 포함하고, 응답자들에게 학과(또는 학부)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대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정체화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년(4점 척도), 학과(또는 학부)행사 참가 정도(5점 척도), 전공강의 출석률(5점 척도) 그리고 학생회 간부 경력(2점 척도)을 묻는 4문항을 설정하였다. 집단의 신입구성원보다는 기존구성원들의 정체화 수준이 더 높으며(Moreland & Levine, 1982), 정체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집단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전공강의 출석률이 높을수록 사회정체화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학생회 간부 경력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있는 학생의 사회정체화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료분석

총 605명의 응답자료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1명의 자료(남=105명, 여=256명)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이용하였고, 나머지 244명의 자료(남=71명, 여=173명)는 교차타당화에 이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남녀 구성비는 각각 29.10%와 70.90%로 동일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교차타당화 분석은 LISREL 8.12a판, 탐색적 요인분석을 비롯한 나머지 분석은 SAS 6.12판을 이용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361명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정체화 척도 30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추출된 모든 요인과 상관이 낮거나 또는 모든 요인과 높게 상관된 문항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11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19개 문항에 대한 기초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요인 3의 고유치는 0.66이고 전체 설명변량 중에서 7.79%의 변량을 차지하고 있어 요인 1과 요인 2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해석가능성을 감안하고 기초 요인분석에서 고유치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Jackson & Tweed, 1980)을 고려한다면 0.66의 고유치도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요인해(final solution)에서도 3개 요인일 때 요인의 해석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정체화 척도의 기초 요인해

	요 인				
	1	2	3	4	5
고유치	6.617	1.329	.657	.429	.328
고유치 차이	5.288	.672	.228	.101	.135
설명변량 %	78.52%	15.77%	7.79%	5.09%	3.89%
누적설명변량 %	78.52%	94.29%	102.08%	107.17%	111.06%
전체변량대비 설명변량 %	34.79%	6.99%	3.46%	2.26%	1.73%

19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법을 적용하였고, 공통분(communality)의 시초값은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이용하였으며, 요인구조의 회전방법은 요인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 방법 중 Orthoblique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2는 각 요인과 측정변수간의 순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패턴계수(또는 요인계수) 행렬표이고, 표 3은 측정변수와 요인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구조계수 행렬표, 그리고 표 4는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표이다.

표 3에서 제 1요인으로 7개의 문항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항들은 대체로 소속 집단에 대한 평가 또는 그 집단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서 '집단자기존중감(group self-esteem)'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으로는 8개 문항이 묶였으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정체화에 따르는 인지 또는 신념을 나타내는 문항들로서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소속집단에 정서적 또는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과 관련된 문항들이어서 '집단개입(commitment to group)'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4의 요인간 상관 행렬표에서 보듯이 자기범주화 요인과 타 요인간의 상관이 .65 및 .64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집단자기존중감과 집단개입간의 상관은 .39였다. 표 3의 구조계수 행렬표에서도 자기범주화 요인의 고유치(합성변량) 중 타 요인과의 공유변량의 비율이 높아 자기범주화 요인의 설명력은 타 요인과의 중복성이 집단자기존중감 요인 과 집단개입 요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 사회정체화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요인계수 행렬표)

문항	집단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집단 가입
22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R)	.798	-.066	.012
14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을 남에게 변명하곤 한다(R)	.750	-.090	-.074
11 나는 이 집단이 없어도 좋겠다(R)	.625	-.150	.233
16 나는 이 집단에 비판적이다(R)	.593	.176	-.125
8 나는 이 집단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R)	.498	-.061	.097
24 나는 이 집단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R)	.479	.251	.066
29 나는 이 집단에 만족한다	.453	.325	.087
23 나는 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R)	.171	.746	-.472
21 나는 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한다	-.194	.729	.227
18 나는 거의 이 집단 사람처럼 행동한다	-.079	.700	-.017
12 이 집단은 나 자신의 본보기가 된다	-.101	.662	.049
27 나는 이 집단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035	.659	.120
15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221	.634	.113
2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치 않다(R)	.185	.579	-.205
5 나는 이 집단의 전형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R)	.142	.528	-.082
7 나는 타인들이 이 집단에 대해 어떤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	-.065	.037	.669
6 누군가 이 집단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 받는 것 같다	.107	.071	.647
30 누군가 이 집단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141	-.083	.637
20 이 집단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136	.376	.456

주. (R)표시된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역채점한 문항임.

표 3. 사회정체화 척도의 구조계수 행렬표

문항	집단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집단 가입	h^2
22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R)	.758	.489	.313	.576
14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을 남에게 변명하곤 한다(R)	.656	.374	.191	.445
11 나는 이 집단이 없어도 좋겠다(R)	.623	.437	.403	.418
16 나는 이 집단에 비판적이다(R)	.659	.497	.252	.447
8 나는 이 집단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R)	.498	.346	.272	.254
24 나는 이 집단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R)	.680	.624	.445	.511
29 나는 이 집단에 만족한다	.713	.695	.505	.593
23 나는 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R)	.478	.543	.110	.435
21 나는 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한다	.404	.750	.639	.614
18 나는 거의 이 집단 사람처럼 행동한다	.394	.634	.425	.406
12 이 집단은 나 자신의 본보기가 된다	.375	.627	.456	.400
27 나는 이 집단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539	.765	.584	.593
15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263	.559	.448	.347
2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치 않다(R)	.493	.567	.269	.364
5 나는 이 집단의 전형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R)	.468	.570	.339	.340
7 나는 타인들이 이 집단에 대해 어떤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	.251	.448	.666	.446
6 누군가 이 집단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 받는 것 같다	.436	.584	.741	.567
30 누군가 이 집단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361	.447	.642	.423
20 이 집단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320	.593	.653	.477
합성변량	5.043 (58.92%)	6.100 (70.48%)	4.256 (49.18%)	8.655
독자적 설명변량	1.513 (17.48%)	1.351 (15.61%)	1.033 (11.94%)	
공유변량	3.530 (40.78%)	4.749 (54.87%)	3.223 (37.24%)	

표 4. 요인간 상관행렬

	집단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집단 개입
집단자기존중감	1.000		
자기범주화	.645*	1.000	
집단개입	.394*	.640*	1.000

* p<.001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내적 일치도 계수(α)를 산출하여 사회 정체화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집단 자기존중감은 .84, 자기범주화는 .83, 그리고 집단개입은 .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평균변별도(문항-총점 상관의 평균)는 각각 .60, .56, .58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 응답자(244명)의 자료를 토대로 교차타당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방법은 개별 측정변수들의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가중 최소자승법(unweighted least square

method: UL)을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분석에 이용된 측정변수들은 5점 척도로 된 개별 문항이었고, Shapiro-Wilks의 분포의 정상성 검증 결과 모든 측정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합지수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부합지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부합지수는 다변량 정상분포의 위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NFI) 및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를 이용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를 검토해 볼 때, 원소간 평균차이(RMR)가 좋은 부합기준인 0.0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부합치(NFI), 기초부합치(GFI)와 조정부합치(AGFI)는 모두 좋은 부합기준치인 0.9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표 6의 요인계수 행렬표와 표 7의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표에 제시된 모든 계수의

표 5. 전반적 부합지수

RMR	GFI	AGFI	NFI
.060	.978	.971	.968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요인계수 행렬표)

문	항	집단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집단 개입	SMC
22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R)	.685	--	--	.469
14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을 남에게 변명하곤 한다(R)	.543	--	--	.294
11	나는 이 집단이 없어지면 좋겠다(R)	.615	--	--	.378
16	나는 이 집단에 비판적이다(R)	.635	--	--	.403
8	나는 이 집단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R)	.484	--	--	.235
24	나는 이 집단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R)	.769	--	--	.592
29	나는 이 집단에 만족한다	.845	--	--	.713
23	나는 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R)	--	.510	--	.260
21	나는 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한다	--	.739	--	.545
18	나는 거의 이 집단 사람처럼 행동한다	--	.623	--	.389
12	이 집단은 나 자신의 본보기가 된다	--	.615	--	.378
27	나는 이 집단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	.794	--	.631
15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	.533	--	.284
2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치 않다(R)	--	.578	--	.334
5	나는 이 집단의 전형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R)	--	.592	--	.351
7	나는 타인들이 이 집단에 관해 어떤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	--	--	.594	.353
6	누군가 이 집단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 받는 것 같다	--	--	.790	.625
30	누군가 이 집단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	--	.632	.400
20	이 집단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	--	.715	.511

고정지수(T-value)들은 2.0이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간 상관계수는 집단자기존중감 요인과 자기범주화 요인간에 $r=.69$, 집단자기존중감 요인과 집단개입 요인간에 $r=.54$, 자기범주화 요인과 집단개입 요인간에 $r=.69$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요인간 상관행렬)

	집단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집단 개입
집단자기존중감	1.000		
자기범주화	.694	1.000	
집단개입	.546	.694	1.000

교차타당화를 위해 24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부합지수들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1차 모형 검증의 부합지수(표 5)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GFI, AGFI 및 NFI가 모두 .90이상으로 모두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고 요인계수도 모두 유의(T-value가 2.0이상)한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8. 교차타당화 분석의 전반적 부합지수

RMR	GFI	AGFI	NFI
.074	.960	.949	.938

척도의 타당도

모형확인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교차타당화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계수와 부합지수 등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은 모두 605명의 전체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척도들간의 상관 분석에 앞서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와 우리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공동체의식 검사의 '조화와 단결'요인을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모두 .60이상으로 양호하며, 이 요인 4개 문항의 신뢰도 .57 역시 문항 수에 따라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성 척도의 경우 23개 문항 중 4개 문항은 변

별도가 아주 낮아 제외하고 19개의 문항만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하위 요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점만으로 분석하였다. 19개 문항의 우리성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매우 높았다.

사회정체화 척도와 공동체의식 검사의 각 하위 척도 및 우리성 척도간의 상관계수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정체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기범주화 요인이 공동체의식 검사의 5개 하위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계를 보였고(.51~.71), '집단자기존중감-공동체 의식'간 그리고 '집단개입-공동체 의식'간의 상관계수도 .32~.49 사이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회정체화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사회정체화 척도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친밀성과 소속감' 요인 및 '동일시와 공과공유' 요인과의 상관계수가 다른 요인과의 상관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이 두 요인은 사회정체화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우리성 척도와 공동체의식 검사의 신뢰도, 평균변별도 및 평균

	문항수	α	평균 변별도	평균	표준 편차
우리성 척도	19	.92	.61	5.09	.89
공동체의식 검사					
친밀성과 소속감	4	.86	.70	3.08	.83
조화와 단결	4	.57	.36	3.69	.62
자발적 참여	4	.82	.65	2.79	.87
동일시와 공과공유	4	.77	.58	2.76	.73
자율성과 공공의식	4	.71	.50	3.19	.71

표 10. 사회정체화 척도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

	집단자기 존중감	자기 범주화	집단 개입
공동체의식 검사	.490*	.718*	.451*
친밀성과 소속감	.387*	.503*	.402*
조화와 단결	.327*	.592*	.267*
자발적 참여	.411*	.660*	.451*
동일시와 공과공유	.353*	.505*	.316*
자율성과 공공의식	.225*	.231*	.171*
우리성 척도			

* $p < .001$

표 11. 사회정체화 척도 및 다른 척도와 관련 준거들간의 상관

	집단자기존중감	자기범주화	집단개입	공동체 의식	우리성
학년	.144***	.230***	.131**	.104*	.123**
학과 행사 참여도	.253***	.449***	.179***	.187***	.052
학생회 간부활동 경험	.065	.200***	.093*	.056	-.029
전공강의 출석률	.001	-.008	.060	.004	.012

* p<.05 ** p<.01 ***p<.001

한편, 사회정체화 하위 요인들과 우리성 척도간의 상관관계는 예상대로 각각 .22, .23, .1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사회정체화 척도가 집단내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된 우리성 척도와는 변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준거들과의 상관 사회정체화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된 4가지 준거와 사회정체화의 각 하위 척도간의 상관계수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예측한바와 같이,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의 행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리고 학생회의 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사회정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정체화 척도가 어느 정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부활동 경험은 자기범주화 및 집단개입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자기존중감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근래 일반 대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무관심과 간부학생에 대한 비협조 경향으로 인한 간부경력 학생들의 실망이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공강의 출석률과 사회정체화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출석률이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출석률의 응답편차가 매우 작게 나타났는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공동체 의식 검사 점수는 학년 및 학과 행사 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리성 척도 점수는 학년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두 척도에 비해서 사회정체화 척도가 본 연구에 포함된 관련 준거들에 대한 예언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지니는 정도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자기범주화(인지), 집단자기존중감(평가) 및 집단개입(감정)의 세 요인이 추출되어 사회정체화가 다차원적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세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8 ~ .84로 양호하였으며,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정체화의 요인구조는 다차원 구조를 보인 여러 선행연구들 중 Ellemers 등(1999)의 결과와 가장 유사하다. Ellemers 등(1999)은 자기범주화, 집단자기존중감 및 집단개입 등 사회정체화의 3요인을 확인하고 내집단 지위와 크기 그리고 집단형성의 자발성이 각각 다른 요인에 영향을 줌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지위는 집단자존감 및 집단개입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집단자존감이 더 높았고 집단에 더 많이 개입했다. 그리고 내집단 크기의 효과는 자기범주화 요인에 대해서만 유의해서 다수집단보다 소수집단이 더 강하게 자기범주화 했으며, 집단형성의 자발성은 개입 요인에만 영향을 미쳐서 집단에 강제로 할당된 멤버보다 자발적으로 집단을 선택한 멤버들이 집단에 더 강하게 개입했다.

Hinkle 등(1989)은 3요인(인지, 감정 및 개인/집단 욕구상충)을 추출하고 이 중에서 감정 요인만이 외집단 차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사회정체화의 각 하위 요인들이 여러 유형의 집단간 행동 또는 집단의 여러 특징들과 어떤 차별적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정체화 척도(Karasawa, 1991 등)도 있고, 다요인 구조로 밝혀진 척도 중 일부(Hinkle et al., 1989 등)에서 요인간 상호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요인간 상호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 등은 사회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기보다는 단일 요인구조를 지닌 개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정체화 개념의 요인구조에 관해서 추가적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거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척도 개발 연구도 가능하지만 다른 방향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실험이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요인별 점수의 공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만일 어떤 두 요인이 비교적 독립적이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 요인의 점수가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의 점수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자기존중감과 집단개입이 독립적인 차원이라면 집단자기존중감에 손상을 입더라도 집단구성원들의 집단에 대한 애정이나 개입수준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사회정체화 척도가 지니는 한계 및 이와 관련한 장차 연구 과제를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겠다. 먼저,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소속 학과에 대한 정체화 수준을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척도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동창회, 군대, 기업 또는 동호회 등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집단이나 사회범주를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척도는 자연 집단의 구성원들의 사회정체화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험 상황에서 급조되는 실험실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문항들(예, 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실에 대해서 남들에게 변명하곤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실험 상황에서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 또는 독립변인 조작 점점을 위해서 이 척도를 사용하려면 문항 수를 단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Cameron과 Lalonde(2001)는 성(gender)이나 인종과 같은 영속적인 범주에 대한 정체화는 인지, 감정 및 평가의 3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로는 완전히 파악

하기 어렵고 인지적 중심성 개념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집단이나 사회범주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앞으로 다루어야 할 한가지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체화와 관련하여 한국문화권에만 독특하게 존재할만한 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이런 특성들을 측정하는 새로운 문항들을 척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요인의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체화 척도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이 척도는 사회정체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있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의 명제들을 검증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연구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el과 Ashforth(1992)는 사회정체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으로 사회정체화의 역기능적 측면을 지적하고 사회정체화 수준이 높은 성원들로 구성된 조직은 적응력이 높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반면에 변화에 대한 저항, 편협한 시각, 창의성 감소 등의 부정적 특징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사회정체화 수준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응용적 측면에서도 이 척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송관재, 이재창과 홍영오(2001)는 지체장애인이거나 윤락녀와 같은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의 개인적 자기존중감이 일반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발견하고 오점보유자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심리적 기제를 이용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의 사회정체화 수준이나 집단자기존중감을 측정해 본다면 이에 관한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로서 기업 간의 인수 및 합병이 사원들의 조직정체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조직정체화 수준의 변화가 개인 및 조직 전체 차원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스포츠 장면에서 경기 팀간의 빈번한 선수 교환이 팀웍이나 선수 개인의 소속팀에 대한 정체화 및 성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간, 기업간, 문화간, 또는 국가간의 사회정체화 수준의 비교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현수(1991). 직무만족과 작업오인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집단성 지각과 내외통제 성향의 중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권 1호, 103-116.
- 성한기(1996). 집단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 규범의 영향: 집단극화의 동기적 기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권 1호, 99-114.
-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게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적 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권 1호, 119-136.
- 정진경(1999). 한국 공동체 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권 2호, 19-30.
- 한덕용(1996). 집단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 간 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권 1호, 39-84.
- Ashforth, B. E. & Mael, F.(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4, 20-39.
- Bergami, M., & Bagozzi, R. P. (2000). Self-categorization, affective commitment and group self-esteem as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in the organ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555-577.
- Branscombe, N. R., & Wann, D. L. (1994). Collective self-esteem consequences of outgroup derogation when derogation when a valued social identity is on tri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641-657.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482.
- Brown, R., Condor, S., Mathews, A., Wade, G., & Williams, J. (1986). Explaining intergroup differentiation in an industrial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273-286.
- Cameron, J. E., & Lalonde, R. N. (2001). Social identification and gender-related ideology in women and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59-77.
- Doosje, B., Ellemers, N., & Spears, R. (1995). Perceived intragroup variability as a function of group status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410-436.
- Ellemers, N.(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 27-57.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s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s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Ellemers, N., & van Rijswijk, W. (1997). Identity needs versus social opportunities: The use of group-level and individual-level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 52-65.
- Ellemers, N., van Rijswijk, W., Roefs, M., & Simons, C. (1997). Bias in intergroup perceptions: Balancing group identity with social re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86-198.
- Fisher, R. J., & Wakefield, K. (1998). Factors leading to group identification: A field study of winners and losers. *Psychology & Marketing*, 15(1), 23-40.
- Gagnon, A., & Bourhis, R. Y. (1996). Discrimination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Social identity or self-intere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89-1301.

- Guilford, J. P. (1956).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Henderson-King, E., Henderson-King, D., Zhermer, N., Posokhova, S., & Chiker, V. (1997). In-group favoritism and perceived similarity: A look at Russians' perceptions in the post-Soviet era.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013-1021.
- Hinkle, S., & Brown, R. (1990). Intergroup comparisons and social identity: Some links and lacunae. In D. Abrams & M. A. Hogg (Eds.),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New York: Springer-Verlag.
- Hinkle, S., Taylor, L. A., & Fox-Cardamone, L. (1989). Intra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differentiation: A multicomponent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305-317.
- Hogg, M. A., & Abrams, D. (1989).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95-309.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 (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41-254.
- Jackson, D. J., & Tweed, D. L. (1980). Note on the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s a lower bound to communality. *Psychometrika*, 45, 281-284.
- Jetten, J., Spears, R., & Manstead, A. S. R. (1997). Strength of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differentiation: The influence of group norm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603-609.
- Kashima, E. S., Kashima, Y., & Hardie, E. A. (2000). Self-typicality and group identification: Evidence for Their separatenes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3, 97-110.
- Karasawa, M. (1991). Toward an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 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el, F., & Ashforth, B. E.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13, 103-123.
- Mael, F. A., & Tetrick, L. E. (1992). Identifying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813-824.
- McGarty, C. & Penny, R. E. C. (1988). Categorization, accentuation and social judg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147-157.
- Moreland, R. L., Hogg, M. A., & Hains, S. C. (1994). Back to the future: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n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527-555.
- Moreland, R. L. & Levine, J. M. (1982). Socialization in small groups: Temporal changes in individual-group relation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137-19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Reicher, S. D. (1987). Crowd behavior as social action.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Wetherel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 Roccas, S., & Schwartz, S. H. (1993). Effects of intergroup similarity on intergroup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581-595.

- Smith, H. J., & Tyler, T. R. (1997). Choosing the right pond: The impact of group membership on self-esteem and group-oriented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146-170.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부록〉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어떤 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들인데, 각 문항에서 '이 집단'이라는 부분을 '내가 소속한 ()'로 대체하여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보기를 참고로 하여 적당한 번호를 ()안에 적어 주십시오

(보 기)	①	②	③	④	⑤
	전혀	별로	잘 모르	약간	매우
	그렇지	그렇지	겠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는 이 집단 구성원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2. 나는 이 집단의 전형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다
3. 누군가 이 집단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 받는 것 같다
4. 나는 타인들이 이 집단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5. 나는 이 집단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이 집단이 없어지면 좋겠다
7. 이 집단은 나 자신의 본보기가 된다
8. 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실에 대해서 남들에게 변명하곤 한다
9.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나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10. 나는 이 집단에 비판적이다
11. 나는 거의 이 집단 사람처럼 행동한다
12. 이 집단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13. 나는 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한다
14. 나는 이 집단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
15. 나는 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
16. 나는 이 집단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이 집단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18. 나는 이 집단에 만족한다
19. 누군가 이 집단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Identification Scale

Han Gee S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Korean Social Identification Scale which measures the extent that an individual accept his/her membership of a social group as a part of self-concept and identify to the group and examine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Based on the result of a factor analysis of the 361 college students' responses to a 30-item preliminary scale, a 19-item social identification scale was constructed. Three dimensions of social identification - group self-esteem, self-categorization and commitment to the group - could be distinguished as separate factors in a factor analysis of this scale. These results were cross-validated by an analysis of another 244 students' responses. The reliability of the three sub-scale(Cronbach's $\alpha = .78 \sim .84$) was fairly high and both the convergent validity and divergent validity of the scale were satisfactory. As expected, the level of social identif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ade of student, participation in departmental events and staff career of students' association, respectively. Finally,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scale were discussed.

Keywords: social identity, social identification scale, group identification, self-categorization

원고 접수: 2001년 9월 20일

심사 통과: 2001년 11월 14일